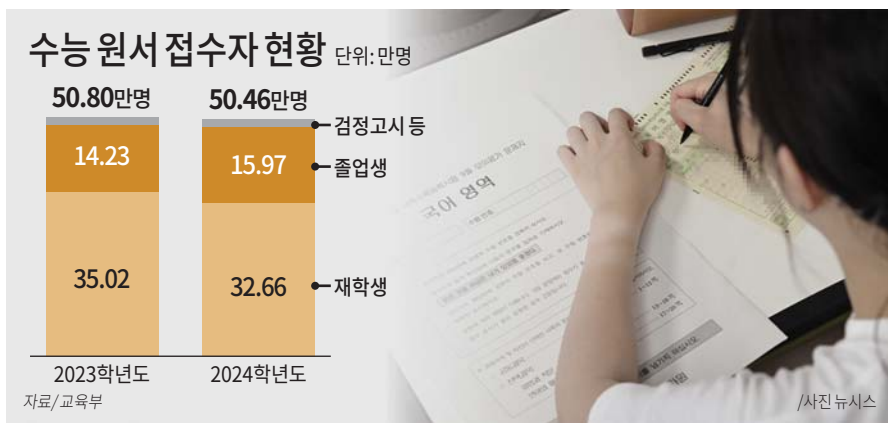
올 수능 3명 중 1명 'N수생'… "이과 상위권 경쟁 치열할 것"

2024 수능 응시자 50만4588명
졸업생 비중 28년 만에 '최고치'
킬러문항 배제돼 부담 완화 영향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442명 줄어 50만4588명으로 이중 30%이상이 N수생(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과 N수생 수가 크게 늘면서 통합수능에서의 유리함과 의학 계열 선호도 증가 등으로 더욱 치열한 상위권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8일까지 실시한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수험생 총 50만4588명이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442명 감소한 수치다.

N수생 규모는 28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고3 재학생은 응시자 64.7%에 해당하는 32만 6646명으로 지난해보다 6.7% 줄어든 반면, 졸업생은 전체 인원의 31.7%인 15만 9742명으로 지난해보다 12.3% 늘었다. 고교 자퇴 후 수능을 대비하는 검정고시생 등은 1만8200명(3.6%)이다.

졸업생에 검정고시생 등을 모두 합하면 17만7942명으로 35.3%를 차지한다. 1995학년도 38.9%, 1996학년도 37.3% 이후 역대 최고다.

이처럼 재수생이 증가하는 요인은 수능 킬러(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돼 수능 부담이 완화하며 N수생 도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수능 부담이 줄어듦과 동시에 통합수능에서 이과생이 유리한 점, 의약학 계열 선호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이과 재수생 수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수능 이과생 비율(과학탐구 선택자 비율)은 사회·과학탐구를 분리 발표한 2005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과학탐구 응시자 비율은 49.8%로 지난해 48.1%보다 1.9%p 늘었다. 과학탐구Ⅱ 응시자도 서울대 지원자격 제한 폐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만5989명에서 올해 2만889명으로 크게 늘었다.

탐구 영역 지원자 중 ▲사회탐구 영역만 선택한 지원자 23만4915명(48.2%) ▲과학탐구 영역만 선택한 지원자 23만2966명(47.8%) ▲사회탐구 1개 과목과 과학탐구 1개 과목을 선택한 지원자 1만9188명(4.0%) 등이다.

이외 영역별로 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지원자 50만4588명 중 ▲국어 영역 50만1321명(99.4%) ▲수학 영역 47만8083명(94.7%) ▲영어 영역 49만8502명(98.8%) ▲한국사 영역 50만4588명(100%) ▲탐구 영역 49만2519명(97.6%)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7만8849명(15.6%)이 선택했다.

국어 영역 지원자 중 '화법과 작문' 선택자는 30만6418명(61.1%)으로 가장 많았다. '언어와 매체' 선택자는 19만4903명(38.9%)으로 지난해(34.1%)보다 4.8%p 오른 비율을 나타냈다.

수학 영역 지원자 47만8083명 중 미적분 선택자는 23만5100명(49.2%)이다. 통합수능 첫 해 38.2%에서 지난해 43.7%로 오른 뒤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22만3550명(46.7%), 기하 선택자는 1만9433명(4.1%)이다.

올해 입시는 이과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대표는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이 쉽게 출제돼 국어, 탐구 영역 중요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과 재수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과 상위원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투자유치 위해 용지계획 변경
업무시설 확대, 숙박·문화시설 축소

서울시는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투자 유치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6월 16일 5차 매각이 유찰된 이후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공급 조건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기타 업무시설 등 지정용도를 확대하고, 비즈니스센터 기능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로 숙박과 문화·집회시설 비중을 축소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며 "자세한 건축계획 등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서울시가 협상을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 참여 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용지공급지침 자문단을 꾸려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가 원만히 이뤄지면 연말에 용지공급 공고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변경안은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전략산업기반과와 마포구 도시계획과에서 14일간 열람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인하대, 직무박람회 성료… 35개 기업 참여

13개 산업군, 멘토 40명 참여
IT, 이차전지 분야 주목 받아

인하대학교는 최근 '2023 직무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직무박람회는 인하대 학생들에게 진로 설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현직자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실적인 취업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직무박람회에는 올해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 738명이 참여해 취업한 현직자 선배에게 직무·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조언을 들었다. 직무·업무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오늘날 취업시장 속에서 개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직무박람회는 '졸업 선배에게 직접 듣는 나의 직무 이야기'를 주제로 열렸다. IT, MD, 건설·플랜트, 경영지원, 금융, 영업·마케팅 등 13개 산업군에 40명의 현직자가 멘토로 나섰다.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우리은행 등 35개 기업에 재직 중인 멘토들은 각각 마련한 부스에서 실질적인 직무 내용, 취업 준비과정, 성공 체험담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공유했다.

특히 하반기 채용 일정이 시작되면서 IT와 이차전지 분야 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SK ON의 직무가 학생들의 주목을 받았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이번 직무박람회는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와 진로 설정 방향성에 대한 노하우를 얻는 게 목적"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직무박람회를 계기로 적극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검단연장선 3개 신설역 이름 공모

한 달 간 역명 추천받아 내년 2월 확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25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에 신설되는 3개 역의 역명을 제정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한 달간 역명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계양역부터 검단신도시를 잇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은 총 길이 6.825㎞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7,277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다. 현재 공정률은 75%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정거장은 3개소로 각각 ▲101정거장(서구 원당동 1017번지 일원) ▲102정거장(서구 원당동 636-15번지 일원) ▲103정거장(서구 불로동 608-16번지 일원)이다.

역명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이나 행정구역 명칭,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나 시설 명칭 등 시민들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제정된다. 추천받은 역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역명 결정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역명 추천은 의견수렴 기간인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폐기물 다량 배출 단속

서울시는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혼합배출 방지를 통한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비닐·페트(PET)류 등 재활용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을 합산해 1일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버리는 사업장이다. 시는 각 자치구와 이달 중순부터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개소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한 달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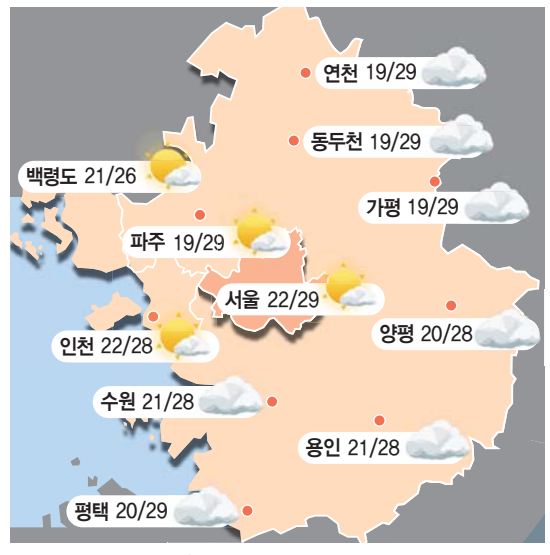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11 | 해짐 / 18:46

9월 12일 (火)
음력 : 7월 28일

수도권 날씨
22 ~ 29 ℃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유커'·'싼커' 유입…하반기 경기 불확실성 속 내수 진작 이끌까 /사진 뉴시스
▲러, 우크라 4개 병합지서 첫 지방선거…여당 압승
▲시진핑, 한반도 유사시 투입 78집단군 시찰…전투 태세 강조
▲'왕좌의게임' '백종원 한식' 무대 마라케시 유적, 모로코 강진에 무너져

▲룰라 "푸틴, 내년 G20 정상회의선 체포 걱정 안 해도 돼"
▲바이든 "중국 경제난으로 대만 침공 가능성 낮아져" /사진 뉴시스